

특별기고



박진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그날의 진실로 다가서기 위한 ‘증언과 치유’

통해서야 겨우 그들과의 만남이 이뤄지게 된다.

80년 당시 헬기왕성한 20대의 청년들은 지금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네 힘 빠진 아버지요, 이마에 주름 가득한 할아버지가 돼 있었다. 오래된 영상 화면 속에서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진압봉으로 시민을 폭행하던 서슬 파랑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강한 눈빛만은 그들이 과거 특전사였구나 유추해볼 정도였다.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증상은 다양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본인이 폭력의 당사자였다는 죄책감과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군인이었기에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과 혼란감을 겪고 있다.

‘증언과 치유’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5대 중단 종교계에서의 제안에서 시작돼 학계, 시민사회, 의료계의 조언과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시작은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본 계엄군들이 종교에 의존해 종교적 용서와 치유를 받고 이후 조사위가 그들의 증언을 받아 진상규명에 힘쓴다였다.

하지만 계획했던 것처럼 본인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놓고 참여하고자 하는 계엄군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1년여의 준비 기간과 수정 보완을 거쳐 다행히도 조사위와의 면담과 조사에 응해줬던 상당수 계엄군들이 그들의 소모임과 동지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고 13명의 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팀을 이뤄 첫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됐다.

미술 치유, 자연 치유, 명상과 음식 치유, 심리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계엄군 스스로도 점점 잊혀져가는 기억 속의 80년 당시 그날의 시간·공간적 진실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리극에서 계엄군 A씨는 80년 5월 20일 당시 광주신역에서 있었던 본인의 폭력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눈물로 용서를 받았다.

광주 출신이었던 그는 계엄군 동료들의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총에 장착된 대검으로 의식을 잃고 끌려온 시민의 대퇴부를 찔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소총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을 지금까지도 손에서 느껴진다고 했으며, 군 제대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향한 동네 사람들의 원망과 죄책감을 견딜수 없어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눈물로 용서

A씨 뿐만 아니라 계엄군들에게 광주는 두려움이었고 미안함이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본인 행동의 정당성이나 정치적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본인도 피해자였다는 계엄군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애써 외면해야만 했고 기억속, 가슴속 저편 구석에 깊숙이 숨겨둬야만 했던 아픔이기도 했다.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고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질책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현재 2차 증언과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보완 할 것이며 조사위가 활동을 마치더라도 시민사회 및 종교계, 학계 등에서 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객관화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하여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한 계엄군들에 대한 섬세한 트라우마 치유와 더불어 그들의 자발적인 증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교육에게 말한다

주는 장이요, 타고난 재능을 개발해 직업 찾기를 안내하는 장이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는 장이다.

즉 ‘인성과 지성 그리고 함께’라는 삶과 꿈을 안내하는 멋진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못지않게 배우는 사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학습이나 생활지도가 주로 주입식, 강요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살아 숨을 쉴 수가 없다.

획일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시험이라는 형식을 거쳐 도달점을 확인해야 하고, 규격화된 교칙은 학습자의 입장보다는 기존의 관습에 따르기 이런 환경에서 자율성을 노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습자에게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한 선택권이나 참여권이 있어야 성취감도 뒤따를 것이다. 게임에서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초보 단계를 넘어서 중급으로 향하며 뒀기 이뤘다는 원초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연결이나 융합으로 새로운 생각을 쓰게 하고 대안을 찾게 하면 좋은 현상인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정말 어렵다.

현 교육은 점수와 등수로 종결을 해야 하기에 객관식이나 정답이 분명한 서술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만큼 연결하고 공유할 내용을 언어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비틀고 바꿔서 새로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타인과 공유하고 연결할 부분도 많을 것이며 타인에게 인정욕구까지 얻을 수 있다.

게임은 어떠한가. 등수나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등이나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과 고민거리 및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기에 친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습자가 지식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게임의 장에서는 그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으니 마음 또한 편안하지 않을까?

교육 현장에서 수업의 내용과 교육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 전문가, 정치인, 다수의 국민이 교육개혁에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그동안 틀에 갇힌 교육이 국민 의식을 얼마나 편협하게 했는가? 그 교육은 국민의 생각을 죽였으며 의식까지 옹졸하게 키우지 않았는가. 만약 그 교육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된다면 그들 또한 퇴행적 사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업임을 기억하자.

사설

복합쇼핑몰, 실용적 방향으로 계속 가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현안인 복합쇼핑몰 건립을 국가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주초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국가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며 “시에서 새로 생길 쇼핑몰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제시하는 게 중요한 만큼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는 1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 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에게도 광주 이슈,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 시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눈길을 끈다. 기업인, 투자자들이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관련 제안을 보고 협상안을 만드려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여러 절차적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광주시 전향적인 자세다. 복합쇼핑몰 유지 목소리가 나올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

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에도 복합쇼핑몰을 짓도록 하겠다고 공약할 때만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사업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주도할 일이 아니라고 폄하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강 시장도 지방선거 후보 당시 복합쇼핑몰 유지에 ‘국가주도형’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수개월 흐른 지금 전혀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사업으로 간주되는 복합쇼핑몰 사업이 국가주도형으로 전환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 정부가 이미 공약한 데다 이왕 유지할 쇼핑몰이라면 신속히 그 흐름을 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반론적인 명분에 잡히기보다는 광주가 처한 각종 인프라 부재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 실용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지역 발전에 무엇이 효과적이고 실리적인지 빠른 판단으로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재유행, 경각심 갖고 대응하자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주간 단위로 2배가 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나 타났다. 지난 11일 기준 광주 662명, 전남 754명 등 총 1,416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1주 전 66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 신규확진자 1,000명 이상은 지난 5월 30일 1,045명 이후 42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행 인구 증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BA.5) 확산에 따른 재감염 증가, 예방접종 완료자 면역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3,423명)을 저점으로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1주일마다 두 배가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이다. 사실상 6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대응방안 정비에 나섰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

환됐다”며 재유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다음 달에는 전국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특수·응급병상을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도 정비했다. 감염 취약계층은 사회서비스원 긴급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시설 내 격리실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 확산의 근본적인 배경은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사회 전반의 경각심 약화일 것이다. 최대의 적은 방심이다.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큰 BA.5는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하지만 중증화율이 낮아 치명률은 비슷하다고 하니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을

기지사설



김혜린

사회부 기자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행정당국의 관리 부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킥보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킥보드 견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접수된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견인업체 선정을 미루며 뒷집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는 각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될 경우 민원 접수 20분 경과 후 즉시 견인된다. 또 일반 구역에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공유 킥보드는 신고 시 대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재배치

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며, 그 이후에도 방치되는 경우 각 자치구별 견인대행업체를 통해 견인된다.

그러나 광주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는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견인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5개 공유업체가 6,570대(지난달 기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은 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민원 중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건수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총 140건으로,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5개 자치구는 현재의 운영 방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 견인업체 위탁에 관한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다.

더군다나 견인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

각 지자체는 견인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고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루 빨리 안전한 이용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광호

여수 여양중 교사

요즘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분신처럼 여긴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카페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중심역할을 한다. 세대별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청소년이 더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학습에 필요한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도 하며 드라마, 음악, 영화 감상을 할 수도 있다. 반면 게임에 중독돼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된다.

왜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유혹(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 이것은 학교의 생활시스템과 상관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공부를 정의한다면 이렇다. 그곳은 전인교육을 통한 인격을 다듬어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차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사인부 (062) 720-1067	사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jndn@chol.com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M 전남매일

유튜브·네이버 포스트에서도 만나요!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